



도날드 글로버(Donald McKinley Glover, Childish Gambino)는 영화배우이자 가수, 프로듀서, 작가, DJ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본인의 다양한 재능을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Childish Gambino 라는 이름은 본인의 음악 예명이다. (요즘엔 곧 Childish Gambino라는 이름의 활동은 끝낼 것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다)

2018년 그래미 어워즈에선 최우수 트래디셔널 알앤비 앨범 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2019년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대상적인 올해의 레코드와 올해의 노래를 수상하며 가수 커리어에 정점을 찍고 있고 있다.

그는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시작으로 후에 본인이 연출하고 주연한 '아틀란타' 라는 티비 시리즈로 에미상 (방송계 최대의 행사이다. 1949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5월에 할리우드에서 개최된다)과 골든 글로브 시상식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영화상)에서 모두 수상 할 정도로 가수로서의 성공 이전에 배우로서 큰 성공 역시 주목을 받았다. 주연배우상과 작가상, 최우수 프로그램상등 다양한 종목의 수상에서 보이듯 그의 역량은 매우 뛰어나다.

1983년생인 도날드 글로버는 학창시절 예술학교 등을 다니며 글쓰기로 주목을 받았으며 디제이로 활동하기도 했다. 첫 번째로 자체 제작한 싱글앨범 'The Younger I Get'을 만들었으나 발매되지는 못하였고, 2011년 글래스노트 레코드와 계약하며 2011년 11월 15일 첫 스튜디오 앨범 《캠프》를 발매하여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의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 《Because the Internet》은 2013년 12월 10일에 발매되었다.

이때까지의 앨범들을 보면 그의 힙합과 알앤비를 통한 트렌디한 앨범을 만드는 능력을 볼 수 있다.

글로버의 3집 앨범 "Awaken, My Love!"는 2016년 12월 2일 발매 되었으며, 빌보드 핫 100에서 12위에 올랐던 싱글 "Redbone"을 담고 있다. 그 해 그래미 어워즈 최우수 트래디셔널 알앤비 앨범 상을 수상했다.

이 앨범을 들어보면 그의 80년대 흑인음악 히어로들에 대한 오마주를 느낄 수 있다.

2018년 5월, 글로버는 핫 100에서 1위로 데뷔한 "This Is America"의 곡과 비디오를 발표하였으며, 이 곡은 제61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최우수 랩/성공 공연, 최우수 뮤직 비디오 까지 총 네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였다.

최근에 발매한 EP 'Summer Pack'의 수록곡 "Feels Like Summer"로도 그래미 최우수 알앤비곡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제 독립적 음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존 메이어(John Clayton Mayer)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 라이터, 프로듀서로 활동 하고 있으며 요즘엔 음악이 아닌 연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 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비평가들과 대중들을 모두 사로잡은 아티스트로써 1999년 첫 번째 EP앨범 Inside Wants Out을 녹음하고 활동하던 존 메이어는 2000년 공연으로 Columbia Records의 자회사인 Aware Records사의 눈에 띄어 계약을 맺게 된다. 이후 2009년 까지 "Room for Squares", "Heavier Things", "Continuum", "Battle Studies" 등 4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총 7개의 그래미상을 거머쥐며 성공의 커리어를 달린다.

버디 가이, B.B 킹, 프레디 킹, 엘버트 킹, 오티스 러시, 라이트닝 홉킨스, 스티비 레이비 본 등 블루스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을 그는 젊은 10대 시절엔 연습만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본인은 음악에 전념코자 대학진학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버클리 음대에 입학하고 2학기 만에 자퇴를 한 뒤 음악활동에만 전념하게 된다.

첫 앨범인 Room for Squarres의 성공에 이어 두 번째 앨범의 수록곡인 Daughters로 그래미에서 올해의 곡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멋진 외모는 그의 음악성을 가리는 요소였다.

(유명 음악잡지에서는 '그는 스티비 레이비 본의 후예인가 아니면 노래가 끝나면 소녀들이 소리 지르는 팝스타인가' 라는 칼럼을 쓰기도 하였다.)

이때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Song Of The Year (올해의 노래상)에 같이 후보에 올랐던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가 수상에 더 어울리는 곡이라며 트로피의 윗부분은 알리샤 키스에게 주고 자기는 밑동을 가져갔다고 한다. 이후 둘은 매우 친해져 서로 음악작업을 같이하는 동료가 되었다.

그는 꾸준히 전설적인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이어 갔으며 (그의 우상인 버디가이 비비킹 에릭 클랩튼과 같이 공연과 레코딩 작업을 병행함) 현시대를 대표하는 기타 히어로가 되었다.

또한 힙합 뮤직의 거물인 랍퍼 Common의 곡에 샘플링 되며 (프로듀서 칸예웨스트) 다른 음악계에서도 주목을 받게 된다.

2005년 봄 베이스리스트 피노 팔라디노와 드러머 스티브 조던과 함께 존 메이어 트리오를 결성하였는데 이 3인조 밴드는 블루스와 록 음악을 결합하여 과거의 기타 히어로들을 재조명 하며 새로운 트리오 사운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2006년 앨범 Continuum는 존메이어 트리오의 멤버인 스티브 조던과 본인이 프로듀싱했으며 명곡인 'Gravity'가 수록 되어있다. 이 앨범의 큰 성공 이후에 존메이어 스스로 압박을 느꼈다 한다. 허나 다음 앨범인 Battle Studies 역시 큰 성공을 이뤘으며 이어진 투어에서 4,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뒤이어 Born and Raised (2012) Paradise Valley (2013) 발매 하며 다시 포크에 기반을 둔 본인의 스타일 음악을 이어간다. 이때는 심각한 성대결절을 겪으며 2년 정도 노래를 쉬며 콘서트 등을 연기하기도 하였다.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2014년에는 한국에서도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열며 회복에 성공했음을 보여 주었다. 그 뒤 Grateful Dead의 마지막 콘서트를 위해 오리지널 멤버들과 데드엔컴퍼니를 결성하고 미 전역의 투어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다. 빌보드는 이를 '매직'이라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이었다.